

주부·고령자 고용촉진 단기훈련 호응 높아

노동부 올 처음 실시, 고학력 정년퇴임자들 많아

노동부가 1주일 이내의 단기 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92 제1기 주부 및 중·고령자 고용촉진 단기적응 훈련>이 훈련대상자들의 높은 참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훈련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건물시설 환경관리원 직종에 60명을 모집했는데 애초 모집인원의 두배에 가까운 1백3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특히 단순한 용돈마련,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취업을 위한 쪽보다 정년을 끝내고 인생의 정리단계에서 무엇이든 일로 사회에 봉사하려는 취지로 몰려든 분들이 많아 주부와 준고령층 대상의 단기고용촉진 훈련의 확대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원이 건물시설 환경관리원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들 취업자중 다수가 대학, 대학원이라는 고학력 소지자들이었고 전직학교 교장·교감, 세무소장을 지냈거나 군에서 예편한 중·대령급장교, 회사사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 눈에 띄는 큰 특징이다.

노동부가 처음 실시한 이번 주부·고령자에 대한 무료취업 대비훈련은 '가용 유희인력에 대한 고용촉진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부담이 비교적 적은 직종에의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해 경제활동 재참여를 통해 인력난 완화와 주부·고령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이 훈련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위시해 서울 YWCA 근로여성회관 등 3개의 훈련기관에서 현재까지 3차례 실시된 바 있다.

취업훈련 대상직종은 건물시설 환경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판매원, 주유원, 전자제품조립 검사원, 봉제보조원 등 단순직종에 집중된 이번 훈련은 그간 정부가 실시해온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실직자 대상의 취업훈련과 달리 경제적 이유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의 정년퇴직자들과 일반 주부의 호응이 적지 않아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의 설명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리부 정임상 고용촉진과 과장은 "이

번 훈련은 취업을 원하는 주부와 50세 이상의 준고령층을 겨냥한 것으로 애초 모집공고한 대상 인원수를 넘더라도 다 받아들여 교육후 수료증과 함께 1백% 취업을 도울 예정"이라며 특히 주부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직종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올랐던 분들이 대거 참여, 경제적 이유보다 일자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취업목적이든 취업하고자 하고 모든 분들에게 많이 활용돼 발전된다면 단순한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기교육자로 참석한 박건양(68) 씨는 "저를 위시해 여기에온 많은 고령자들의 사회경륜은 대단하지만 나이가 많아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일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나머지 여생을 일하며 건강을 찾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교육을 받았다" 말했다.

이번 직종교육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11명)보다 남성들(92명)이 많았던 것도 한 특징이지만 공단측에 따르면 주부가 취업가능한 직종에 대해 교육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여성들은 제품검사원, 봉제보조원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혜숙 기자>